

밴쿠버시의 재난 대비 이해하기: 지역사회의 관점

연구 보고서 | 요약본

주요 결과

-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인식한 재해**는 지진과 산불 연기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폭염과 폭풍해일 등이 많았습니다.
- **재난 대비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 **위험 인식과 대비 수준**은 응답자의 성별, 거주 지역, 주거 형태, 자가/임차 여부, 과거 재난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기반의 대비 방안, 기관의 더욱 명확한 소통, 개인의 행동과 공동체적 지원을 연결하여 다양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 재난 회복력 연구 네트워크(Disaster Resilience Research Network, DRRN)가 밴쿠버시 재난관리국(VEMA)과 협력하여 수행한 정량·정성 혼합 연구의 결과를 제시합니다. 본 연구는 재난 회복력 연구에 주력하는 DRRN과의 연구 협약을 통해 BC주 비상관리·기후대응부(BC Ministry of Emergency Management and Climate Readiness)로부터 일부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UBC 공공정책·글로벌사무대학원의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토론을 통해 밴쿠버 전역의 재난 대비와 회복력을 조사하고 개인과 지역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는 위험 환경 속에서 재난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획하며 대응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밴쿠버시 관계자들이 재난 대비를 가로막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작업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는 (1) 밴쿠버시가 실시한 재난 대비 관련 설문조사(2,905명 응답)와 UBC가 실시한 위험 인식 및 과거 재난 경험이 대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후속 설문조사(1,743명 응답)로 구성된 통합 설문조사, (2) 총 50명이 참여한 6회의 포커스 그룹 토론 등 두 가지의 주요 연구 도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도구를

통해 시민들의 위험 인식, 대비 행동, 기관에 대한 신뢰, 대비를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재해는 지진과 산불 연기였으나, 그 외에도 많은 참여자들이 광범위한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험 인식과 대비 행동은 지역사회 경험, 인프라, 주거 형태, 과거 재난 경험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매우 지역화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응답자의 **78.8%**는 주택, 콘도 또는 세입자 보험에 가입했으며, **68%** 이상의 응답자는 집에 재난 대비 물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거나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었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29.9%**는 재난 대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정보 부족을 꼽았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원 접근의 어려움, 비상 대응 절차 이해의 부족,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메시지로 인한 혼란 등을 지적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언어, 민족성, 소득, 성별, 임차 여부 등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지표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본 예비 보고서에는 지표별 세부 분석을 포함하지 않지만, 설문조사 결과와 포커스 그룹 모두에서 성 정체성과 주거 임차 여부에 따른 차이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모든 응답자가 더 많은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적 제약을 주요 장애 요인으로 꼽았지만, 여성이라고 밝힌 응답자들은 재난에 대해 생각할 때 감당하기 어렵거나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포커스 그룹에서 세입자들은 주택 소유자에 비해 주거지 재난 대비에 대한 통제력이 제한되고 더 많이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도적 안전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강력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별과 임차 여부를 고려한 재난 대비 정책의 필요성과 임대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개인 차원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답자들은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하고 회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사회적 무관심, 고립, 집단행동의 부족은 재난 대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관성 있게 운영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대비 모델, 정부 기관의 명확한 소통, 개인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체의 집단적 대비를 촉진하는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커스 그룹 토론에서 드러난 신뢰에 대한 초기 논의 결과는 정부의 기술적 전문성에 대한 믿음과 실제 비상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성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거비 부담 능력과 주택 문제 등 지속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정부 주도의 대비 노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본 연구는 재난 대비가 더 형평성 있고 지역사회 중심적이며, 다중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삶의 경험을 존중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위험과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여건을 해결하는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참고: 본 연구 결과는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개인들의 의견만을 반영한 것으로, 밴쿠버 전체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체 보고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저자: Jonathan Eaton, Raahina Somani, Hang Cheng Ip, Michael Hooper, Theodore Lim, Sara Shneiderman.